

자녀 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Childbirth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15~49세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에 관해 살펴보았다. 조사에 응답한 기혼 여성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로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상자녀수는 2.16명이나 실제 출산한 자녀수는 1.75명으로 이상자녀수보다 0.41명 적으며, 향후의 출산계획까지 고려하여도 이상자녀수보다 0.24명이 적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한국 출생아수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하락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수는 출생 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소인 36만 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8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는 2만 61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13.3%) 감소했다. 이에 따라 9월 기준 출생아수는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10명 적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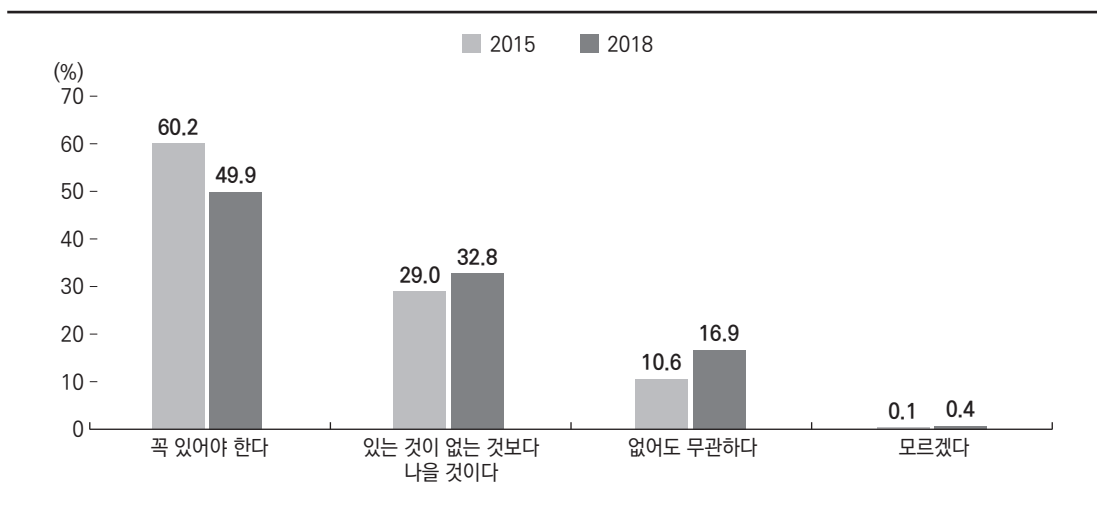
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출생아수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추이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경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선택인 출산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출생아수의 감소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성적표로 이해될 수 있는 데다 출생아수의 감소가 다양한 사회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

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15~49세) 출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가치관, 출산 계획, 출산 수준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관(자녀의 필요성, 자녀가 필요한 이유,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을 조사하였다. 우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이며, 다음으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32.8%, ‘없어도 무관하다’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자녀 필요성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생각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자녀의 필요성은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자녀에 대해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3%포인트 증가하였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즉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를 질문하였다. 응답한 기혼 여성 중 81.1%는 ‘가정의 행복과 조화’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심리적 만족’(15.6%)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가문(대)을 잇기 위해(1.2%)’,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분위기여서’(0.7%), ‘노후생활을 위해서’(0.5%), ‘부모님이 원해서’(0.5%), 기타(‘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타’ 등 0.4%)의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 혹은 수단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25.3%),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16.2%),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5.6%),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워서’(1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필요한 이유는 정서적인 것이라는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자녀가 없어도 무관한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 기혼 여성(15~49세)에게 자녀가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이유

(단위: %)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								계	(명)
가문(대)을 잇기 위해	부모님이 원해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심리적 만족	주변 사람들이 자녀를 갖는 분위기	가정의 행복과 조화	기타			
1.2	0.5	0.5	15.6	0.7	81.1	0.4		100.0	(9,265)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이유								계	(명)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	직장생활 지속 희망	부부만의 생활 추구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 곤란	불임 등으로 임신 곤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기타		
24.1	2.5	15.6	16.2	11.3	2.4	25.3	2.7	100.0	(1,896)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2>, <표 5-3> 재구성.

3.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수에 대한 생각과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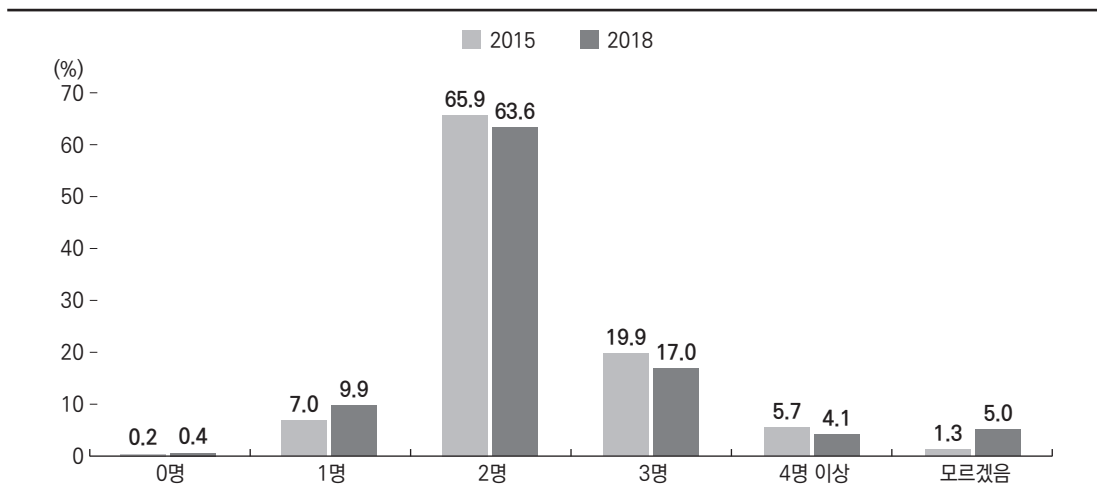
가. 이상자녀수

자녀수를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수치는 계획자녀수, 출산자녀수, 기대자녀수이다.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이상자녀수(ideal number of children)를 질문한 결과, 과반수가 2명(63.6%)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3명(17.0%), 1명(9.9%), 4명 이상(4.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이상자녀수는 2.16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이상자녀수가 2명(65.9%), 3명(19.9%), 1명(7.0%), 4명 이상(5.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자녀수는

2.25명이었다. 즉, 2018년 조사 결과는 2015년 조사와 비교해, 0명과 1명을 꼽은 비율이 증가한 반면 2명 이상을 꼽은 비율은 감소하였고 평균 이상자녀수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혼 여성(15~49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추구해 볼 만한 목표의 실현과 자녀수가 관계가 있는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걱정된 자녀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걱정된 자녀수는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0명(27.7%), 2명(2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일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체로 적은 수의 자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그림 2. 기혼 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나타났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을 위해 적절한 자녀 수로는 2명(30.0%), 관계없음(2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후의 안락을 위해 2명 정도의 자녀가 적절하거나,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는 문화가 약화되면서 노후 안락과 자녀수가 무관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녀수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가장 높고, 무자녀(25.1%), 2명(1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자산 마련을 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간

접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0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37.5%)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1명(35.6%), 2명(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경력 쌓기를 위해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보다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2015년 조사 결과에서는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32.8%)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0명(28.4%)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

표 2. 인생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절한 자녀수에 대한 기혼 여성(15~49세)의 생각

(단위: %)

추구하는 인생 목표		인생 목표 실현에 있어서 적절한 자녀수						(명)
		0명	1명	2명	3명 이상	관계 없음	계	
나 자신과 관심 있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	2015년	20.9	36.1	20.1	1.8	21.2	100.0	(11,008)
	2018년	27.7	38.8	20.1	1.5	11.8	100.0	(11,207)
노후에 안락하게 사는 것	2015년	6.6	21.6	28.2	8.5	35.0	100.0	(11,009)
	2018년	10.6	23.3	30.0	11.2	24.8	100.0	(11,207)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2015년	19.5	36.6	19.5	1.6	22.8	100.0	(11,008)
	2018년	25.1	39.4	18.6	2.0	14.9	100.0	(11,207)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는 것	2015년	28.4	32.8	13.6	1.1	24.2	100.0	(11,007)
	2018년	37.5	35.6	13.9	1.1	11.8	100.0	(11,207)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 (2015)]	2015년	-	56.5	26.7	1.8	15.0	100.0	(11,004)
	2018년	2.8	43.2	33.8	6.9	13.4	100.0	(11,207)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5>.

을 위해서는 1명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2명(33.8%), 관계없음(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응답하여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결과는 2018년 조사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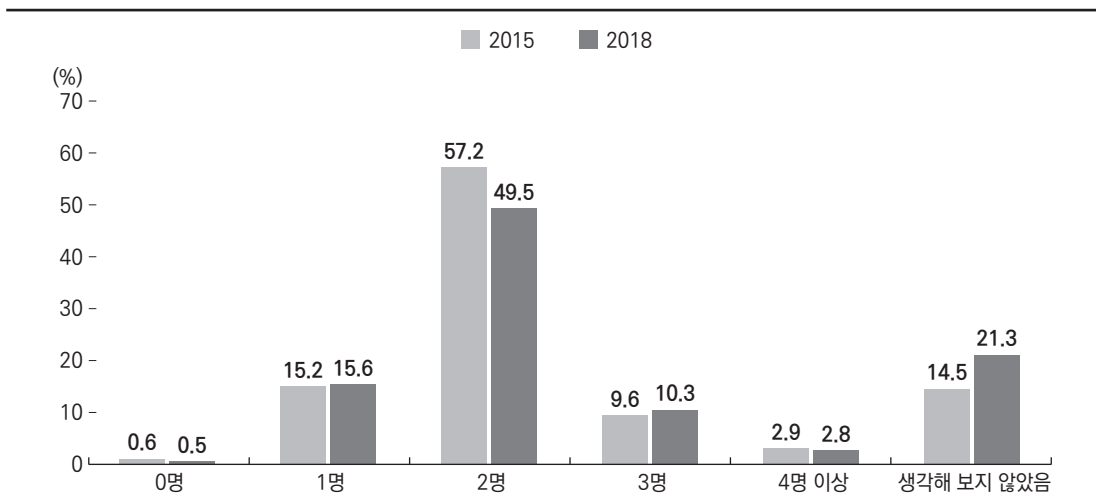
종합해 보면, 인생의 다양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자녀는 대체로 2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기혼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위한 시간 마련,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명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무자녀가 적정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후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2명의 자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어렵고,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계획자녀수

기혼 여성(15~49세)의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수는 0명에서 4명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체 기혼 여성 중 계획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획자녀수가 1명인 경우 15.6%, 3명 10.3%, 4명 이상 2.8%, 무자녀 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62.6%가 결혼 당

그림 3. 기혼 여성(15~49세)이 결혼 당시에 계획한 자녀수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 2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감소한 수준이나 여전히 계획자녀수가 평균 2명이라는 점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출생아수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수는 2명(53.3%), 1명(26.4%), 3명(12.1%), 0명(6.9%), 4명 이상(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출생아수는 1.75명이다. 이는 2015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각 비율은 1명과 2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1.0%포인트 미만의 차이를 보인다. 즉, 2015년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수는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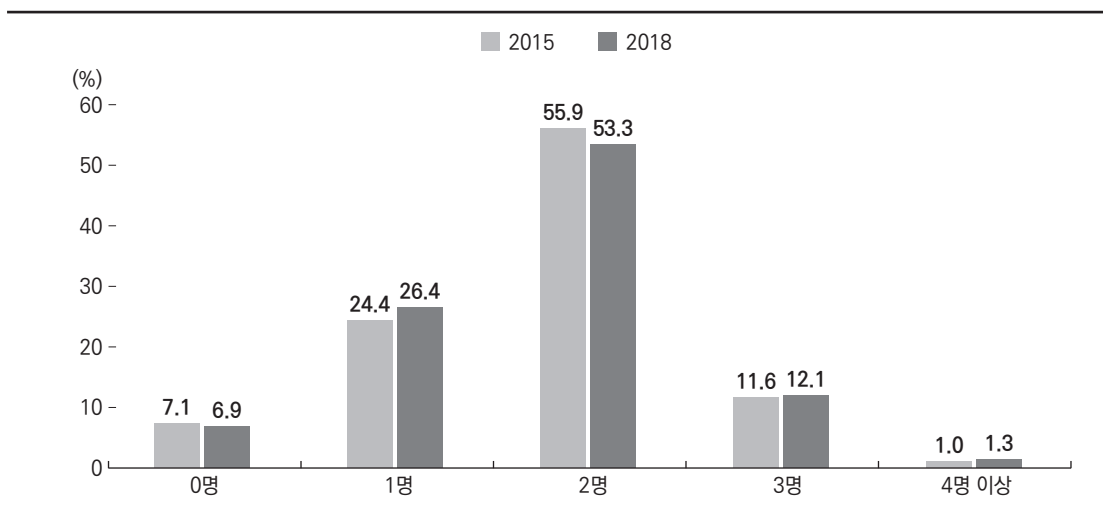
(55.9%), 1명(24.4%), 3명(11.6%), 0명(7.1%), 4명 이상(1.0%) 등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출생아수는 1.8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4.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계획과 기대자녀수

가. 향후 출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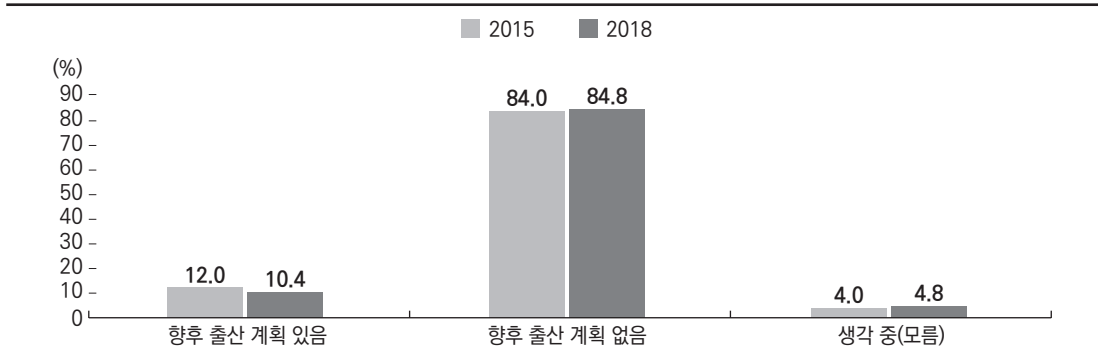
현재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계획을 질문한 결과, '계획 없음'(84.8%), '계획 있음'(10.4%), '모르겠음'(4.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획이 있는 경우는 2015년 조사 결과(12.0%)와 비교해 1.6%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4. 기혼 여성(15~49세)의 출생아수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5. 유배우 여성(15~49세)의 향후 출산 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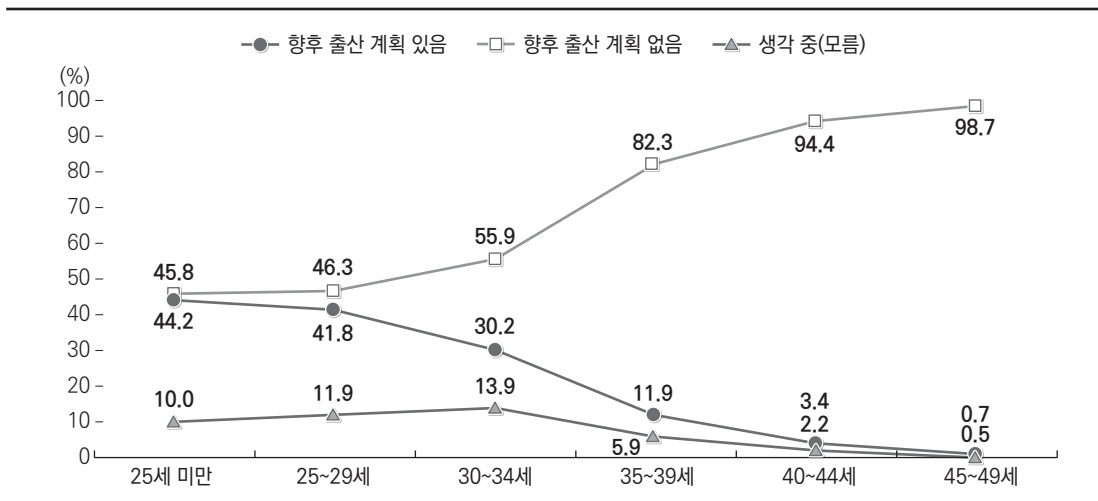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구체적으로 유배우 여성의 연령에 따른 향후 출산 계획 여부를 살펴보면, 35세 이상이 되면 80% 이상의 여성이 향후 출산 계획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출산이 35세 이전에 이루

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혼화 현상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자녀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짧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출생아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6. 유배우 여성(15~49세)의 연령별 추가 출산 계획 여부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향후에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는, 즉 출산이
완결된 유배우 여성(15~49세)의 출산 중단 이유
를 조사한 결과, 현재 자녀수가 충분하다는 이유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
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를 포함: 20.1%)
와 본인의 고연령(20.1%) 때문이라는 비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향후 자녀 출산 계획은
당사자의 연령과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자녀 교육비 부
담’(16.8%), ‘자녀 양육비 부담’(14.2%), ‘소득·고
용불안정’(7.9%), ‘일·가정양립 곤란’(6.9) 등이
었다.

표 3. 유배우 여성(15~49세)의 출산 중단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	(명)
전체	7.9	1.3	14.2	16.8	6.9	3.1	20.1	0.8	1.4	4.0	20.1	2.8	0.6	100.0	(9,011)
연령															
25세 미만	20.7	-	28.6	13.4	12.9	-	12.1	-	-	-	-	4.1	8.2	100.0	(35)
25~29세	13.8	4.1	26.6	13.0	11.2	5.8	15.8	0.9	-	2.8	-	5.3	0.7	100.0	(224)
30~34세	10.1	3.0	22.8	17.6	14.2	4.5	17.7	1.1	0.5	3.0	.5	3.7	1.2	100.0	(848)
35~39세	9.4	1.7	20.4	20.9	10.6	3.7	18.7	0.9	0.9	3.8	5.0	3.4	0.7	100.0	(2,117)
40~44세	7.5	1.0	13.7	18.9	6.0	2.9	20.8	1.0	1.3	4.2	19.0	3.1	0.5	100.0	(2,562)
45~49세	6.2	0.6	7.1	12.6	2.9	2.4	21.3	0.6	2.1	4.4	37.6	1.8	0.4	100.0	(3,226)
가구 소득															
60% 미만	22.2	1.5	16.7	13.3	1.6	2.4	12.7	1.3	0.9	7.4	17.3	1.5	1.1	100.0	(590)
60~80% 미만	14.7	1.9	19.6	15.2	4.9	1.8	17.3	0.9	1.2	4.0	15.6	2.3	0.6	100.0	(1,390)
80~100% 미만	10.2	1.9	15.6	18.3	4.7	2.6	18.8	0.9	1.9	3.7	17.5	3.2	0.6	100.0	(1,679)
100~120% 미만	6.5	0.9	15.5	19.0	6.4	2.8	19.8	0.5	1.3	3.3	20.6	2.9	0.5	100.0	(1,588)
120~140% 미만	4.3	1.3	13.7	18.1	8.6	3.9	19.9	1.0	1.1	3.3	21.0	3.3	0.6	100.0	(1,262)
140~160% 미만	3.1	0.7	9.7	16.5	8.3	3.0	24.3	0.8	2.1	4.0	24.7	2.4	0.3	100.0	(877)
160% 이상	1.4	0.7	8.5	14.8	11.3	4.8	24.5	0.8	1.1	4.3	24.0	3.0	0.7	100.0	(1,624)
출생아수															
0명	3.9	0.9	4.7	5.1	4.9	13.8	0.4	1.0	21.3	13.5	21.8	7.1	1.5	100.0	(217)
1명	9.1	1.8	12.6	15.9	13.4	4.7	5.3	1.1	3.0	7.3	20.3	4.6	0.8	100.0	(1,923)
2명	7.9	1.1	14.9	17.9	5.8	2.7	21.8	0.9	0.3	2.9	20.7	2.4	0.6	100.0	(5,476)
3명 이상	7.0	1.5	14.6	15.5	2.8	0.8	36.7	0.2	0.2	2.2	17.1	1.2	0.3	100.0	(1,395)

주: 1) ① 소득이 적어서, 실업 상태여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②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③ 자녀 양육비 부담 ④ 자
녀 교육비 부담 ⑤ 일·가정양립 곤란 ⑥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 위해서,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자아 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⑦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남들과 자녀수가 비슷해서, 아이가 많아서 ⑧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
서,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와상 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 때문에 ⑨ 불임 ⑩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 문제 ⑪ 본인
의 고연령 ⑫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 ⑬ 기타

2) 가구 소득은 2018년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약 453만 원)을 100%로 하여 분석하였음.

3)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가중치 적용으로 함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5>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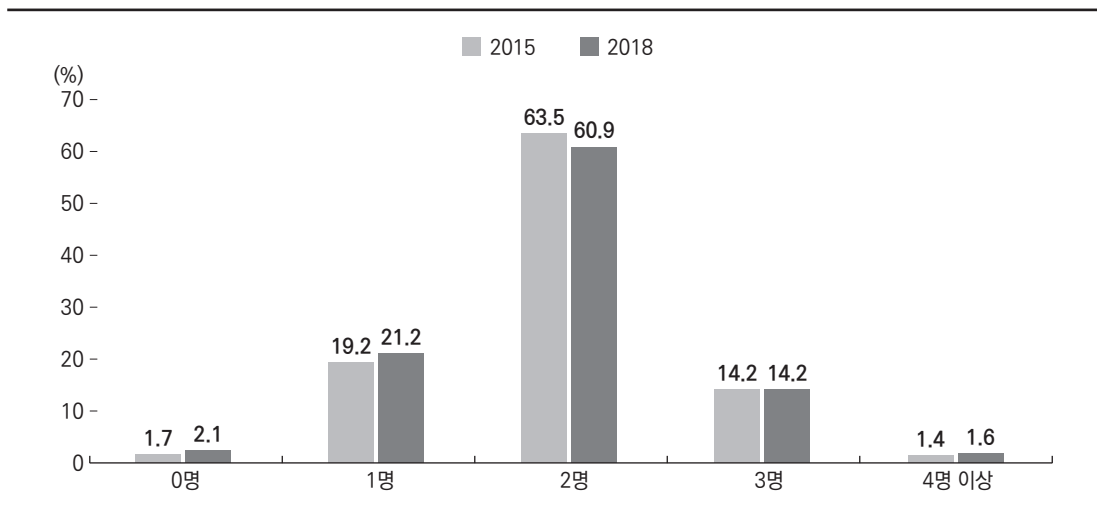
나. 기대자녀수

기대자녀수는 실제로 출산한 자녀수(출생아수)에 향후 출산을 계획한 자녀수를 더한 것으로, 특히 유배우 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는 완결출산율(complete fertility rate)로서 의미가 있다. 기대자녀수로는 2명이 6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21.2%), 3명(14.2%), 무자녀(2.1%), 4명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2015년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무자녀와 1명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2명 이상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전체 기혼 여성의 기대자녀수가 2명(63.5%), 1명(19.2%), 3명(14.2%), 무자녀(1.7%), 4명 이상(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2018년 1.91명으로 2015년 조사 결과(1.94

명)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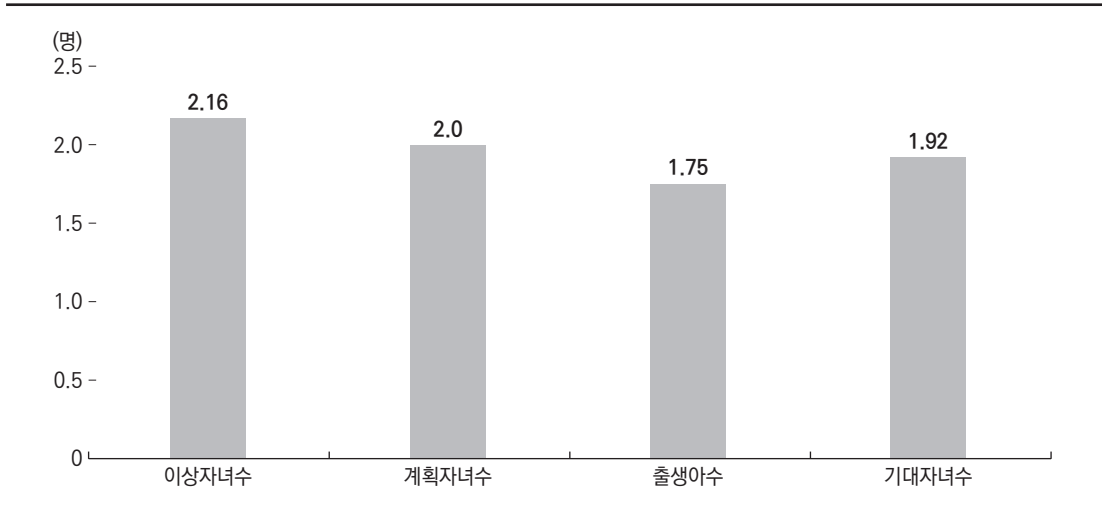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결혼 당시 계획자녀수, 출생아수 및 기대자녀수를 평균값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출생아수는 1.75명, 기대자녀수는 1.92명, 이상자녀수는 2.16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까지의 출생아 수는 이상자녀수보다 0.41명 적으며, 향후 출산까지 고려하여도(기대자녀수) 이상자녀수보다 0.24명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7. 유배우 여성(15~49세)의 기대자녀수



자료: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8. 유배우 여성(15~49세)의 이상자녀수, 계획자녀수, 출생아수, 기대자녀수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기혼 여성(15~49세)의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 및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라고 응답한) 여성은 전체 응답 여성 중 82.7%로 거의 모든 기혼 여성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평균 이상 자녀수는 2.16명이었으며 결혼 당시 계획한 자녀수도 평균 2.0명으로 나타나 여전히 결혼한 여성은 2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출산한 자녀수는 1.75명으로 이상자녀수보다 0.41명 적으며, 향후 출산까지 고려하여도(기대자녀수) 이상자녀

수보다 0.24명이 적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즉, 이들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에서도 기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혼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위한 시간 마련,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명의 자녀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무자녀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일·가정양립이 어렵고 자

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출산이라는 개인 생애사적인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한다고 해서 개인이 출산을 쉽게 선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의 자녀 출산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할 일은 원하는 자녀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즉 국가가 개인에게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선택하고 싶은 항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18. 2. 2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 (2018. 11. 28.). 2018년 9월 인구동향. 보도자료